

SK, 2005년 정유사업 최고실적

매출 · 순이익 2004년 수준 돌파 확실히 ... GS · S-Oil은 부진?

SK의 2005년 사업실적이 매출과 순이익에서 사상 최대치인 2004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.

정유업계에 따르면, SK는 2004년 매출이 사상 최대치인 17조4000억원, 순이익도 1조6448억원을 달성한 데 이어 2005년에는 1-11월 매출이 21조원에 달했다.

2005년 10월과 11월 2달간 매출이 3/4분기(5조7549억원)와 비슷한 5조3000억원이나 발생하면서 매출실적이 2004년 수준을 넘어섰다.

이에 따라 12월 동결기의 수요 급증을 감안하면 2005년 총 매출이 24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.

순이익은 2005년 상반기까지도 해외 정유기업들의 가동률 상승으로 인한 정제마진 감소로 2004년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으나, 계열사들의 영업실적 호조로 인한 지분법 이익 증대와 석유화학 및 원유 개발 사업의 선전 등으로 2004년 순이익 수준을 능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.

SK는 1-9월 당기순이익이 1조2086억원을 기록했다.

반면, GS칼텍스를 비롯해 S-Oil, 현대오일뱅크 등은 매출이 늘었지만 순이익은 2004년보다 못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된다.

GS칼텍스는 2005년 1-9월 매출과 순이익이 각각 11조4845억원, 5106억원으로 2004년 1-9월 매출(10조975억원)과 순익(4382억원)을 넘어섰다.

그러나 2005년 발생한 환차익이 2004년보다 크게 줄어 순익은 2004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현대오일뱅크도 2005년 매출이 2004년 수준을 넘어섰지만 순이익은 줄거나 비슷한 선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.

S-Oil은 2005년 1-9월 순이익이 1500억원 감소한 4158억원을 기록했기 때문에 순이익 기록 갱신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6/01/09>